

종합·해설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세균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들이 6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왼쪽부터)안희정, 송영길 최고위원, 정 대표, 김민석, 박주선, 김진표 최고위원. /연합뉴스

등원 어떻게... 지도력 첫 시험대

■ 민주당 지도부 출범 의미와 전망

당내 화합·지지층 결집 최우선 과제

6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정세균 대표 등 새 지도부는 18대 국회의 최대 야당, 대안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지난 1월 출범한 손학규 대표 체제는 대선 참패 이후 당을 추스르는 역할이 부여된 과도기적 성격이 강했다. 그 사이에 구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뤄지고 4월 총선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예상 밖의 선전을 펼쳐 대안야당으로서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 이후 당이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한 채 여러 계파들의 역량이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총선 공천은 물론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계파간 지분싸움이 불거지는 등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세균 체제의 선택은 현 시점에서 '변화'보다는 '화합'을 원하는 당사의 현주소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혁' 이미지와 대중성을 갖춘 추미애 후보가 '민심'에서는 앞서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부를 추스르는 게 더 시급하다는 바닥 정서가 정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당심이 '화합'만 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변화'를 모토로 앞세운 추 후보가 조직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당내 상황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즉, 변화를 하되, 당내 화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사의 최종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결국 정 대표는 트레이드 마크인 화합 이미지를 통해 당내 세력구도를 진정화 화합적 결합으로 승화시키고 이완되고 흩어진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켜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은 양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지도부는 취임과 동시에 당직자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할 뿐 아니라 당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제각각 이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잘 따라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 체제는 또 변화를 통해 대선·총선의 연이은 참패 기억을 씻어내고 '강한 야당', '정책야당'을 만들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대안야당의 모습을 갖추는 일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당 대표에게 강화된 권한을 부여한 것도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의지가 작용했다.

당장 여야 간 대치정국에서 주도권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명분으로 등원하느냐가 새 지도부의 첫 임무이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등원 이후에는 치열한 정책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권여당 10년의 경험을 국민에게 보여줘 수권정당의 면모를 만드는 것도 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 종료 1개월...벼랑끝 몰린 전남 닭·오리 농가들

보상 현실성 없고 생산비 폭등 '二重苦'

살처분 37농가 중 18농가만 자금 지원

은행 융자받기도 어려워 자금난에 허덕

지난 4월 8일 첫 발견이후 2개월여 동안 전남 전역을 휩쓸었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가 종료됐으나 피해 농가들은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여름 성수기가 되면서 닭·오리 소비가 다소 살아나긴 했으나 광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현실성 없는 보상, 형식적인 자금지원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농가 자금난에 시름 깊어지=이번 AI로 도내에서 살처분된 닭·오리는 37개 농가(1개 업체 포함) 74만8천마리에 달하며, 매몰 처리된 종란은 11개 농가 137만7천개이다.

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닭·오리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름 성수기가 되면서 시중 소비가 20% 가량 늘고 가격도 30% 가량 상승했다고 하지만 유통 마진 등으로 인해 생산농가에는 별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생산

농가들은 "닭·오리 가격이 오르고 출하가 늘고 있다는 것은 뉴스에서나 보는 일"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농가들은 AI 사태 당시 사육두수를 크게 줄인데다 사료값 등 생산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부채 상환 압박 등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성 없는 보상=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정부와 농가가 가장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산란계에 대한 보상이다. 농가들은 닭의 미래 생산 가치(달걀 생산 수량)와 물가인상분, 사료값 등을 고려해 2만 5천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상은 절반 수준인 1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살처분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가구당 최고 1천 400만원)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전남지역에서 살처분(예방적살처분 포함)은 37개 농가에 대해서 이뤄졌지만 발생지점으로부터 3km이

내(위험지역)의 18개 농가에만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됐다. 19개 농가는 3km 밖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은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살처분후 닭·오리를 재입식하는 데 1개월 반이 걸렸기 때문에 피해가 3km이내 지역 농가 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AI발생지점으로부터 3~10km(경계지역)에 위치, 이동제한 대상에 포함돼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가구당 최고 1천400만원) 지원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영암지역에서 오리들 2~3만마리를 기르는 농가들의 경우, 약 10일간의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시기가 늦어지면서 사료 값과 인건비 추가 부담 등으로 평균 3천~4천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경영안정자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또 5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연 3%의 입식자금융자를 해주고 있으나 이를 융자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점도 문제다. 전업농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수천만~수억원의 은행융자 담보 설정이 돼있는 상황여서 신규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대한민국의 지갑을 든든히 지키고 키우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금융파트너! SC스탠다드 상호저축은행이 옵니다

대한민국의 저축은행에도 세계적인 금융전략과 든든한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150여 년 동안 세계 103여 개국에 수 백만 고객과 함께 해온 SC그룹의 7만여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대한민국 금융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지갑을 든든하게, 든든하게, 풍요롭게 SC그룹의 글로벌 금융노하우가 당신의 것입니다.

SC스탠다드 상호저축은행 탄생기념!

1년 이상 예금 보유 시

- 1년 예금: 10% 특별할인 (월 100만원 이상)
- 2년 예금: 12% 특별할인 (월 100만원 이상)
- 3년 예금: 15% 특별할인 (월 100만원 이상)

Your Special Cash! 개인신용대출

- 1. 저축액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최대 100% (최대 100만원)
- 2. 1년 이상 예금 보유 시 1% 특별할인
- 3. 3년 이상 예금 보유 시 2% 특별할인

www.scstandardsavingsbank.co.kr

■ 정세균 대표는 누구

정책으로 잔뼈 굵은 '화합형 투사'

6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정세균 대표는 15대부터 내리 4선을 한 전북지역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은화란 이미지 때문에 원내외에 우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제정책통이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기초위원장과 정책조정위원장,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책위 의장과 예결특위 위원장, 나아가 원내대표에서 당의장,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대 후보로부터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열린우리계, 386 의원, 손학규계 등의 고른 지지를 받으며 무난하게 당 대표에 당선됐다.

그에게는 '구원투수', '화합형 투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당 내부적으로는 화합의 카리스마로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면서도 대(對) 한나라당 전선에서는 소신과 독심을 지키고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위기 때마다 당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 때문이다.

2005년 10월 재선거 패배 이후

3개월간 임시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하며 대표적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진두지휘한 것이 단적인 예다. 사학법 통과를 기점으로 난과 직전의 열린우리당은 위기를 벗어났다.

1950년 9월,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서 태어난 정 대표는 진안군 동향면 능길초등학교와 주천면에 있는 주천중학교, 전주 신흥고등학교, 고려대 법대를 각각 졸업했다.

부인 최혜경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송영길, 386리더 입지 굳힌 3선 의원 김민석, '시련의 세월' 딛고 재기 성공 박주선, 지역 대변 중량급 정치인으로 안희정, 대선자금 옥고 치른 '盧 사람' 김진표, 참여정부서 부총리 역임

■ 민주당 최고위원 면면

6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신임 최고위원에 송영길, 김민석, 김진표, 박주선, 안희정, 김진표 후보 등 5명이 뽑혔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고흥 출신으로 광주 북성중과 대동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대표적 386 정치인이다. 대우자동차 용접공, 택시기사 등으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뒤늦게 19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6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18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서울 출신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의장 출신의 재선(15, 16대) 의원이다. 2002년 지방선거 때 당시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으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했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나선 박주선 의원은 3위로 무난하게 최고위원의 반열에 오르며 중량급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 보상이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